

정부 홀대에 문화 인프라 구축 동력 상실

/리뷰 2016/ ⑤ 문화전당 개관 1년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창조벨트 올인…국책사업 외면
방문객 260여만명 성과…킬러콘텐츠 부재는 아쉬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 개관 1주년(11월25일)을 맞았으나 도약의 원년이 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올인하면서 문화전당이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 문화융성을 내세운 정부가 국책사업을 외면하는 바람에 문화전당 활성화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가 문화전당을 홀대한 바람에 문화전당을 축으로 광주 전역에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도 활력을 잃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 때문이다.

문화전당이 개관 1년을 맞아 성과가 없

지는 않았다. 25일 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개관 이후 1년 동안 전시 33종·공연 82종·교육·97종 선보였다. 기획·상설공연, 창·제작공연, 어린이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에 모두 55만 여명이 찾는 등 방문 관람객이 260여만명을 기록했다. 문화전당에서는 지난해 11월 25일 전당 개관과 함께 제2회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지난 6월 23일에는 제7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문화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는 아시아문화의 창(窓)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전당은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와 아시아 무용단을 창단하고

아시아의 신화 등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인디라간다국립예술센터, 주한인도문화원, 한-아세안센터 등 아시아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축제도 열었다.

문화전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을 세계에 내놓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문화전당 개관작으로 선보인 호추니엔의 작품인 ‘만 마리의 호랑이’ 등 작품 19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화전당이 관람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시장을 지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문화전당은 내년 개관 2주년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현재 핵심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민평)이 광주항쟁 관련 흔적 유휴복원 논란으로 1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민평은 문화전당 5개원 가운데 유일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정보원은 지난해 11월25일 개관했다.

민평은 옛 전남도청 본관에 있던 5월 항쟁 흔적을 복원해야 한다는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의 반발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 100여일째 문화전당에서 농성 중인 5월 단체 등은 전당 측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훼손한 옛 전남도청 본관 1층 상환실(방수실)과 외벽 총탄 자국 등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평의 운영과 콘텐츠 구성은 광주지역 사회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개관 장기지연,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문화전당은 현재 컨트롤 타워 부재는 물론 조직 안정화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문화전당 업무를 총괄하는 전당장은 1년째 장기공석으로 남아 있다.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문화전당 조직은 활력을 잃은 상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해의 사자성어 ‘君舟民水’

교수신문 선정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君舟民水’(군주민수)가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611명을 상대로 이달 2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 한해를 규정할 사자성어로 ‘君舟民水’가 뽑혔다고 24일 밝혔다.

君舟民水는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은 ‘君者舟也 庶人者水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水則載舟 水則覆舟(수즉재주수 즉복주).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군이차사위 즉위장언이부지위)’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성난 민심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촛불을 밝히 들고, 결국 박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결된 상황을 빚낸 것으로 풀이된다.

육영수 중앙대 교수(역사학)가 추천

※군주민수·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한 성어로, 응답자 611명 가운데 가장 많은 198명(32.4%)의 교수가 이 성어를 뽑았다. 육 교수는 “본노한 국민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하며 박근혜 선장이 지휘하는 배를 흔들고 침몰시키려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행로와 결말은 유신정권의 역사적 성격과 한계를 계승하려는 육심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176명(28.8%)의 교수들이 뽑은 ‘逆天者亡’(역천자망), 3위는 113명(18.5%)이 뽑은 ‘露積成海’(노적성해)였다.

逆天者亡은 ‘맹자’에 나오는 말로,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하기 마련이다’라는 뜻이다. 3위를 차지한 露積成海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가 추천한 성어로 ‘작은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하야 크리스마스” 전국 70만 성탄 촛불

현재 앞 밤 10시30분까지 행진
광주 금남로 1만명 9차 집회
목포 등 16개 시·군 4천여명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박 대통령 퇴진과 조기 탄핵 인용을 바라는 시국회화와 촛불집회가 광주·전남과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주최측은 전국에서 70만 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기사 6면>

제9차 촛불집회가 열린 광주 금남로에는 1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촛불을 들었고 같은 날 목포와 순천 등 16개 시·군에서 치러진 전남지역 촛불집회에는 모두 4000명이 참가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 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마야, 이한철, 에브리싱글데이가 출연한 사전행사 ‘퇴진콘서트 몰라나쇼’에 이어 현 시국을 영상화한 윤종신의 뮤직비디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본 행사의 문을 열었다. 노동계 등 각계 인사와 시민들의 시국발언도 이어졌다.

밤원 결정으로 이날도 신고동교차로, 우린행 삼정동 영업점, 필판동 126맨션,



광화문에 ‘우병우 구치소’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9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24일 오후 서울 경복궁 앞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가면을 쓴 시민이 ‘광화문 구치소’ 모형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삼정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안국역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 등 청와대·국무총리공관·현재 인근에서 밤 10시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퇴진행동은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서

울에 연인원(누적인원) 60만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이밖에도 부산, 대전, 안동과 구미, 포항, 경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일제히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촛불 행진’은 같은 시각 춘천시 석사동 김진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연합뉴스

전국서 해넘이·해맞이 볼 수 있다

광주 31일 오후 5시30분 일몰·내년 1일 오전 7시40분 일출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 날 해넘이도 구름 사이로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5일 낮따해진 새해 첫 날 1월1일 전국 대부분의 날씨를 ‘구름 조금’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여수, 목포, 해남 등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새해 첫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의 경우 31일 오후 5시30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졌다가 다음날인 내년 1월1일 오전 7시40분에 새해 첫해가 떠오

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로 예상된다.

해돋이 명소 향일암이 있는 여수지역은 1월1일 오전 7시36분에 첫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향일암 일출제를 열 계획이다. 해남에서는 오전 7시40분에, 목포에서는 이보다 2분 뒤인 오전 7시42분에 첫 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강릉은 오전 7시40분, 울산은 오전 7시32분, 포항은 오전 7시33분, 제주는 오전 7시38분에 첫해가 뜰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영기자 young@

진제 조계종 종정 신년 법어 “자비연민 베풀어 원융화합”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은 지난 23일 “새해에는 자가를 성찰하고 타인에게는 자비연민을 베풀어 원융화합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신년법어를 발표했다.

진제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과학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는 역설적으로 극심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을 초래했다”며 “새해에는 마음의 눈을 뜨고 인간 본성을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이런 극심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을 이기적 탐욕과 물질 추구의

전도된 가치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우리의 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다”며 “마음을 닦아본 마음을 깨달으면 큰 지혜와 큰 자비가 구축하고 자유와 평화의 참한 행복이 그 속에 있다”고 일깨웠다.

진제 스님은 “내 허물을 성찰하고 국민복을 염원하며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건설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종나무뿌리 감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교수초빙

글로벌 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원을 초빙합니다.

초빙분야 및 인원

재용구분	학과	인원	전공분야	비고
계약제 전임교원	간호학과	0명	간호학	-박사과정 3학기 이상인 자 -임상(종합병원) 또는 관련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접수기간

2017. 1. 5.(목) ~ 1. 6.(금) 16:00까지

접수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부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c.ac.kr) 교수초빙 공고 참조

동강대학교

(612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2017학년도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광주기독교학교(GCDS)는 크리스천 특목학교로서 영성·영어·자율의 정신에 기초하여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유학의 꿈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미국의 크리스천 사립고교, 칼리지와 자매 결연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과 신앙 공동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주님의 일꾼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설립자 이환수 박사
▶서중, 광주일고 졸업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졸업
▶전. 텍사스 한인회 회장
▶현. 텍사스 ChemLee lab 회장

3.신입생 추가모집 및 입학설명회

대상

·국내 중·고교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
·국내대학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
·미국고교 및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1. 교육과정

·미국 고교 편입 및 입학
·미국 칼리지 편입 및 입학
·미국 4년제 대학 편입
·국제반 - 초등 중등 과정(유학)
※ 미국 현지 실시간 화상영어 과정
·국내반 - 초등 중등 과정(국내대학)
※ English Summer Camp
미국 텍사스 탐방 캠프
·국제반 - 고등과정 (유학)
·국내반 - 고등과정 (국내대학)
·미국 대학 진학과정 (유학)

2. 특 전

·크리스천 우대
·소수정원제 수업
·최상의 기숙사 환경
·미국학교 입학까지 미국현지 본교(GCDS)
·담당자의 지속적 학사관리
※ 다수의 미국현지 고교, 대학들과 최적의 교육 인프라를 통하여 미국 고교 편입과 미국 4년제 대학에 편입하게 됩니다.

4. 특별전형 (장학생 선발)

·대상 : 초·중·고
·1차 전형 : 영어·수학
·2차 전형 : 학교장 면접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생활기록부
·전형일시 : 2017.1.9(월) 오전 11시
·합격자 발표 : 2017.1.16(월) 오전 11시
※단, 기숙사비용은 장학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국제기독교학교 홈페이지 참조 (www.gc-ds.com)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입학 담당자
Tel : 061-381-0000
·전남 담양군 무정면 종리 동통길 42-34 (성도리 산 72) Tel : 061-381-1365

광주국제기독교학교

광주국제기독교학교

THE LIGHT SHALL BE THE LIGHT TRUTH